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여정을 즐겁게 만듭

새러 제인 위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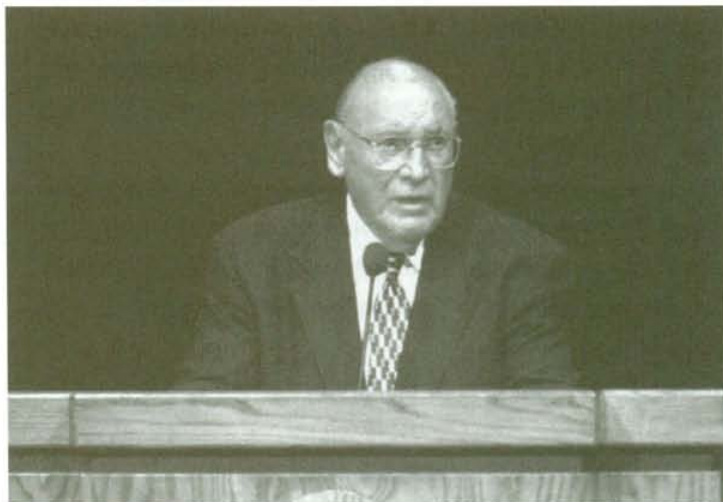


사진 촬영: 마이크 웨스턴, 사진: 데이브 웨스턴

조셉 비 위스린 장로가 청년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는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젊은이들이 의로운 소망을 추구하고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 시고 일생 동안 그들의 여정이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그분께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1999년 11월 7일 위스린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 매리어트 센터에 모인 12,000명이 넘는 대학생 연령의 청년들에게 연설했다. 북미, 중미, 남미와 카리브해 전역에서 수 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날 노변의 모임에서 행해진 연설을 실황, 또는 위성 중계를 통해 시청했다. 교회 교육 기구에서 행해진 말씀이 그렇게 많은 청취자들에게 방영된 것은 처음이었다. 22개국의 언어로 통역된 말씀은 11월 14일 유럽 전

역에도 방영되었으며 세계 여러 국가의 종교 교육원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되었다.

말씀 중 위스린 장로는 학문과 친구들, 특히 미식 축구를 사랑했던 자신의 대학 시절에 대해 회상했다. “제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세상은 대혼란 직전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세계 제2차 대전으로 황폐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1936년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난 지 얼마 후 아버지께서 오셔서 선교사 부름에 대해 고려해 본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던 일을 기억했다. 위스린 장로는 미식 축구 선수가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자 하는 그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꿈을 이루는 것을 어렵게 할 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독님을 찾아가 지금이 바로 선교 사업을 시

작할 때라고 말씀드렸다. 그는 독일/오스트리아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고, 오스트리아 팔츠부르크에서 봉사했다.

위스린 장로는 "선교 사업은 어려웠습니다." 라고 회상한다. "아무도 제 얘기가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 한 와드를 조직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위스린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1818년 조셉 모르가 영감을 받아 "고요한 밤"의 가사를 쓴 곳인, 바바리안 알프스에 위치한 오베른도르프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 "함께 걸어가며 저와 동반자는 우리의 꿈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인생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오래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날 위스린 장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는 주님께 봉사하고 그에게 올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새로이 했다. 그는 결혼해야 할 여성상에 대해서도 결심했다.

"그러한 결심들을 했던 오베른도르프에서의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로 60년이 흘렀습니다."

위스린 장로는 대학생 연령의 청년들에게 말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식 축구에 대한 나의 예감은 확실히 옳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겠다는 꿈은 성취했지만 다시 미식 축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교사로 봉사

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 인생은 저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모험과 영적인 경험, 그리고 기쁨들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위스린 장로는 그 자리에 참석한 젊은이 중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를 이들에게 행복과 성공,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다섯 가지 열쇠를 제언했다.

■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

■ 의로운 목표를 세운다.

■ 설정한 의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일한다.

■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된다.

■ 인생의 여정을 즐긴다.

위스린 장로는 젊은이들에게 행복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상적인 직업과 집, 월급, 원하는 치수의 옷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해지십시오. 지금 행복해지십시오. 돈이나 차가 없더라도, 지금 여러분 얼굴의 피부가 좀 지저분할지라도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십시오. 조급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이 신성하고 귀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위스린 장로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자신

이 처음 선교 사업을 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했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끝맺었다. 위스린 장로는 그 곳에 팔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그는 그 시간을 귀환이라고 불렀다. 그 곳에 한 개의 와드를 조직할 만한 수의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선교사 시절을 다시 회상해 볼 수 있었다.

그는 되돌아보면 그 시련과 외로움의 시절이 그의 성품을 강화시키고 성공에 대한 소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 오베른도르프의 그 성스러운 밤에 제가 한 결심들은 제 인생을 통하여 저를 인도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성취해야 할 일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항상 신앙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의로운 일과 임무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인생의 여정을 즐겼습니다."

1999년 11월 13일자 처치 뉴스에서 발췌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전세계에 방영되다

1999년 11월 7일 조셉 비 위스린 장로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있는 종교 교육원 학생들이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노변의 모임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몽고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및 한국어로 통역되어 북, 중앙,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방영되었다.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이 말씀은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와 러시아어로 통역되어 유럽의 시청자들에게 방영되었다. 이 방송은 디지털 신호 수신 가능한 위성 안테나가 설치된 집회소 건물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

노변의 모임 비디오 테이프는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등 몇 개 다른 언어로 제작되어 지역 노변의 모임을 위해 각 지역의 종교 교육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보조 조직에 대한 조명

우리는 누구인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잠재력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고결성과 동기 부여,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다. 1999년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발표된 이 선언문은 우리의 목적과 잠재력에 관해 배운 원리들을 재확인시켜 주고, 가족과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자매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언문은 하

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고 있다.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이 선언문은 확신을 주고, 기억해야 할 바를 상기시켜 주며, 살아가야 할 바대로 안내해주는 지침이 된다.

최근에 어떤 자매가 이와 같이 글을 썼다. “저는 선언문을 자주 읽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에 큰 감명을 줍니다. 우리가 여성으로서 그와 같은 개인적인 지침을 갖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의 딸이며 우리의 삶은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지니고 있다’는 구절을 큰소리로 암송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자체가 저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많은 용도로 쓰인다. 자매 개개인은 이것을 충실한 말일성도 여성들의 이상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며, 상호부조회 회장은 첫주 일요일 메시지에서 이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개종한 자매나 청년은 자기들이 상호부조회에 소속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사용할 것이며, 부모들은 이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로 가정의 밤 공과를 갖기를 원할 것이다.

진실로 이 선언문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파고들 때, 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부가적인 동기 부여를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 선언문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교회의 자매들에게 말한 다음의 내용을 재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각자 거룩한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가치 있고 우아하고 선하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간증합니다.”(“교회의 여성”,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7~70쪽)

세계 청년 축제 본부 청년 회장단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증인이 됨’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2000년을 기념할 것이다. 금년 동안 일요일에 행해지는 교육 시간과 다른 청년 활동에서는 이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들을 기존 청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와 상의한다. 다음 제언은 상호 항상 모임에서 사용될 수 있다.

■ 청년들에게 니파이서서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권한다. 그들이 신성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의 가치를 배우도록 돕는다. 그들이 구세주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편지를 가족에게 쓰도록

격려한다. 이 간증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할 수 있다.

가족 역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청년의 삶에 축복이 되고, 미래의 가족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청년들은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되고 그들이 조상과 후손을 잇는 연결 고리라는 것을 인식한다.

-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도록 권한다. 미술, 음악, 글쓰기 그 외 다른 방법들로 그들의 창조적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청년들과 함께 구세주의 봉사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한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친구와 가족 및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청년들이 성전 사업을 위해 가족 성명을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일은 그들이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와줄 것이다.

연중 계속되는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11월에 있다. 전세계의 청년들이 스테이크와 지방부 단위로 구세주를 기리는 음악 발표를 하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내 구주 살아 계시다”(찬송가, 68장)를 합창할 것이다. 전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나아와 살아 계신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전하기 위해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복음 교육을 향상시킴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어린이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의로운 가운데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려면 구세주와 그분의 복음 원리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부모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신성한 책임과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교리와 성약 88:78)라고 약속하셨다.

어린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길 원한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다. 그들은 대답을 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 아이들에게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세주의 삶과 가르침을 연구한다.
- 어린이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좋은 반응을 보인다.
- 영으로 가르친다. 간증을 하면 어린이들에게 복음 원리의 참됨을 증거하는 영이 함께 하게 된다.
- 모범을 보인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공부하며, 귀 기울이는 것이다.
- 가르치는 기술을 향상시킨다. 교사 향상 모임은 초등학교 역원 모임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 자신의 가르치는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사들은 이 모임을 잘 활용할 것이다. 교회는 모든 교사들이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복음 교육 및 지도력,” 교회 지침서, 제2권 16편: 신권 및 보조 조직 지

도자: 복음 교육을 향상시킴: 지도자 지도서: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주 간증한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충실하며, 부지런히 주님



을 섬기고,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했다.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하느니라”,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본부 회장단은 어린이들이 복음 원리에 기초한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열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잘 준비된 공과를 통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함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대관장단은 최근에 “교회에서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에 관한 발표를 했다. 이것을 새롭게 강조하는 목적은 “교회 모임과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을 향상시키고 회원들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것이다. (대관장단 서신, 9월 15일)

스테이크와 와드 주일학교 회장단은 주일학교에서의 교육이 반드시 효과적이고 교리적으로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테이크 주일학교 지도자들과 와드 교사 향상 책임자들의 도움으로 주일학교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복음 교육 향상을 도울 수 있다.

- 복음 교육과 학습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토의한다. 이러한 토론들에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포함시킬 수 있다.
- 복음 교육을 향상시킴: 지도자 지도서에 나와 있는 제언들을 실행한다. 특별히 “모든 교사에게 계속적인 지원을 함”편을 참조한다.
- 와드 평의회에 참석하여 주일학교 교육

의 질에 대해 토의하고 복음 교육 과정에 참여할 사람들을 추천한다.

- 와드 교사 향상 책임자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단의 일원을 만나 교육 관련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교사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
- 교사와 약속을 정하여 교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 새로운 교사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돕고 최소한 분기별로 각 교사와 만난다.
- 교사가 교회에서 제공된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계간 교사 향상 모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교사 향상 모임에 참석하고 교사들이 참석하도록 격려한다.
- 새로운 개종자들과 재활동화된 회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주님께서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교리와 성약 88:77~78)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주일학교 회장단이 복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 때 그들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이다.

처음으로 악수를 청한 사람

송평종 형제

서울 서 선교부장단 제2보좌

2000년 새해에 워싱턴에 살고 있는 이영규 형제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가 날아 왔습니다. 이형제는 제가 청년기에 활동했던 서부 지부(현 충청 와드)에 1971년 스스로 찾아와 침례를 받고, 선교 사업을 다녀온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소식이 끊어졌던 형제입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아는 형제님이 1997년 워싱턴에 갔는데 이영규 형제가 교회에 충실하며 사업에서도 성공하는 등 훌륭하게 발전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궁금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형제가 잠시 한국에 들러 그를 만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업을 가진



회원이 거의 없어 유일하게 은행에 다니던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점심을 사주었던 것, 그리고 어려운 시절 열심히 활동하던 서부 지부의 추억을 떠올리다가 문득 제가 그에게 가장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습관처럼 하던 행동이 그에게 큰 감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신년 카드로 자기가 교회에 들어올 때 친절하게 대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구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 변화한다는 것과 이런 것이 바로 회원 선교 사업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독과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한 후 지금은 서울 서 선교부장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단의 일원으로서 각 스테이크를 방문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모든 회원이 선교사이며 선교사로서 구도자를 웃으며 맞이하고 말을 걸어 관심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내킬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우리 모두가 말일성도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협동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형제님이 멀리 워싱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여기는 소요산 정상”

말일성도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밀레니엄 새해 첫 교신

배중호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동두천 지부

“새해 첫 인사 드립니다. 여기는 소요산 정상! 디에스투 오비알(DS2 OBR; 동두천 지부 배중호 형제의 아마추어 무선사 호출 부호)입니다. 모로나이 네트 계십니까?”

“여기는 원도봉산! 디에스투 피엘비(DS2 PLV; 의정부 와드 송화영 자매) 있습니다.”

“여기는 불암산! 디에스원 엘에이취엠(DS1 LHM; 장위 와드 송병철 형제) 있습니다.”

“여기는 교왕산! 디에스원 엘더블류엔(DS1 LWN; 이우영 동스

테이크장)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산에 오셨군요! 저희는 조금 늦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000년 새해 처음으로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말일성도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밀레니엄 새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신년 첫번째 교신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산 정상에서 10여 분 동안 계속되었다. 또한 동행했던 형제 자매들과 원도

봉산, 불암산, 교왕산의 형제 자매들이 차례대로 백병원에 당직 근무 중인 최석구 전임 서울 동 스테이크장과 휴대 전화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아마추어 휴대용 무선기와 휴대 전화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간에 신년 인사를 나누는 정겨운 풍경이 연출되었다.

소요산 정상에는 떠오르는 첫해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동두천 시내엔 은하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처럼 특별했다. 정상에 오른 시민들은 무선 교신을 통하여 신년 인사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부러워 하며 오가는 대화를 귀기울여 들었다. 평소 이용하던 전화보다 더욱 호뭇하고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임정희 자매(DS1 MQL)가 부산 해운대에서만 해가 뜨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해맞이가 불가능하다고 전하자 이 소식을 들은 소요산 등산객들은 직접 해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 만세 삼창을 부른 후 하산 준비를 시작했다. 하산하는 길에는 경기도 일산 신도시 정발산에서 이상형 형제(DS2 NYO)와 최순호 형제(DS2 ESK)와도 무선기를 통하여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 교신 시간: 2000년 1월 1일 06:00~07:30
- 교신 주파수: VHF 145.640 MHz
- 교신 출력: 3~5 W
- 안테나: 로드 안테나

편집자 주: 모로나이 네트(정식 명칭 말일성도 나무 지역단)는 서울 동 스테이크 말일성도 무선사 단체국이며, 호출 부호는 6K0 FO이고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주파수 145.640MHz에서 정규 교신이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 서비스 센터도 HL0 LQO라는 호출 부호로 단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주파수 145.400MHz에서 정규 교신을 하고 있다.

서비스 센터 단체국에서는 작년 5월부터 비상시에 대비한 평시 정규 교신을 운영해 왔으며 작년 9월에는 VHF 안테나를 52소자 야기 및 4단 GP 안테나로 보강하여(적측 사진 참조) 중부권 지역에서의 원활한 교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파악되어 있는 전국의 말일성도 아마추어 무선사 수는 약 100여 명에 이른다.



광주 스테이크

제2회 L.O.A 축제

청소년을 위한 L.O.A(Love One Another)축제가 지난 1월 22일(토) 오후 1시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농구 대회, 가요제, 시뮬레이션, 발레, 연극 춘향전 등 알찬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함박꽃 웃음이 끊일 새 없었다. 특히 구원의 계획을 활동화한 시뮬레이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재물 등을 어떻게 현명히 사용해야 하는지와 승영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하 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형제는 말씀 순서에서 "좋은 친구란 돌보아주는 사람, 필요할 때 힘을 주는 사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이며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완벽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10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이 모임에서 복음을 통해 느끼는 행복과 사랑을 알 수 있었다. (홍세라)

대구 스테이크

배상혁 형제 학술 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배상혁 형제(사진 왼쪽)가 지난 10월 27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이 주관한 '제24회 전국 대학생 학술 연구 발표 대회'에서 '신생아기의 모유 수유 실태 요인에 관한 조사'라는 주제를 발표, 1등상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영남 대학교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배 형제는 후배와 함께 여름 방학 때 만든 설문 조사서를 바탕으로 대구 지역 종합 병원 육아 상담실과 보건소 등을 직접 찾아가 신출내기 엄마 120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와 관련된 각종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자료를 분석했다. 전 대구 스테이크장이었던 배성수 형제와 장정희 자매의 2남 2녀 중 장남인 배 형제는 대전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귀환 선교사이다. (권영환)

대전 스테이크

확장 비축 훈련 및 바자회



선화 와드 상호부조회는 지난 12월 11일(토) 확장 비축 훈련과 함께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10월 기본 비축 훈련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첫째,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비축하기 시작할 것.

둘째, 신권을 가진 형제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

세째, 조금씩 꾸준히 실행할 것.

네째, 비축 프로그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잘 준비되고 조직된 모임이었으며, 특히 오랜 기간 비축 프로그램을 실시한 회장의 솔선수범은 많은 회원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또 이날 바자회 동안 각 가정에서 필요치 않은 물건을 가져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수익금은 공동 비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기로 하였다.(오현옥)

마산 스테이크

마산 스테이크 · 부산 서 지방부 합동 송년 무도회



지난 12월 25일(토) 마산 와드에서 배태호 마산 스테이크장의 감리로 부산 서 지방부와 마산 스테이크 독신들의 합동 송년 무도회가 있었다. 부산 서 지방부장단 김영일 형제의 개회 선언과 함께 마산 스테이크장단의 김충석 형제는 독신들이 성전 안에서 영원한 결혼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무도회 순서에서는 지도자와 함께하는 포크 댄스와 도우미들의 춤 시범이 있었으며, 다함께 무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호명되는 번호의 형제 자매가 짝이 되도록 하였다.(정춘영)

‘99 청소년 예술제



마산 스테이크는 지난 12월 29일(수) “우리에게 오직 이 길 밖에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99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정을 나누며 간증을 키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약 네시간 반 동안 1·2·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은 작품 전시회, 음식 바자회, 선교 전시회, 와드/지부 발표 및 개인 발표를 통하여 재능을 뽐내었고, 마지막 순서로 송년 무도회를 겸하여 활동의 영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임준덕)

부산 스테이크

동계 청년 대회

지난 12월 31일(금)부터 1월 1일(토)까지 부산 송정에 위치한 해양 유스호스텔에서 양기욱 부산 스테이크장의 감리로 동계 청년 대회가 열렸다. 먼저 한중우 형제의 진행으로 송년 무도회가 있는 뒤 자정에 함께 모여 찬송가를 부르면서 새해를 맞이하였고 양기욱 스테이크장의 신년 격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승준 스테이크 선교부장이 선교 사업에 대해, 부산 종교 교육원의 조봉재 형제가 해의 왕국의 결혼에 대해 강의



하였다.(이희숙)

청소년 송년 무도회

지난 12월 30일(목) 부산 수정 와드에서 부산과 울산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송년 무도회를 가졌다. 1부에는 권창덕 형제와 김양희 자매의 진행으로 조를 나누어 성구 외우기, 조원 이름 외우기 게임을 하였으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단합하고 친밀해질 수 있었다. 2부 무도회에서는 함현철 형제와 류현주 자매의 진행으로 포크 댄스, 차차차 등을 배웠다. 끝으로 김정숙, 정미경 자매의 시낭송을 들으며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 되었다.(이희숙)

서울 동 스테이크

청녀 새로운 시작

지난 1월 8일(토) 청녀들의 “새로운 시작” 모임이 있었다. 도봉 와드에서 준비한 중창 “새로운 시작”에 이어 부모 대표의 환영 인사와 청녀 주제·모토 소개가 있었으며 꿀벌반 박지영 자매, 장미반 박지혜 자매, 월계반 최 정 자매가 청녀 표창을 받았다. 청녀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얻게 된 간증을 나누며 새천년의 시작을 함께 하였다.(김성구)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스테이크 축제

지난 12월 25일(토) 오후 동대문 스테이크 용두 와드에서 제2회 동대문 스테이크 축제가 개최되었다. 98년 ‘사랑의 빛으로’를 시작으로 2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성탄절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

는 와드/지부 발표회와 레크리에이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한 회원들의 성의를 느낄 수 있는 발표들이 따뜻한 웃음을 선사해 주었고 특별히 교문 와드에서 준비한 연극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따듯한 충고가 되는 주제를 잘 표현하였다. 또한 장권태 형제와 김양언 자매가 진행한 레크리에이션 순서는 진행자의 재치있는 솜씨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정진정)



인천 스테이크

Y2K 준비 사항 점검



인천 스테이크는 지난 12월 19일(일)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Y2K 준비 사항 점검 훈련을 실시하였다. 전 회원은 성찬식이 끝난 후 가정에 돌아가 그간 준비해 온 비상식량 및 용구를 직접 챙겨 들고 각 와드/지부에 다시 모여, 스테이크장단 및 상호부조회장으로부터 개별 점검을 받았다.

박동화 스테이크장은 회원들에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수 차례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결국 모두가 이를 어리석은 것으

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당했다"며 "이번 준비는 그동안 수 차례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식량 비축 사업의 일부일 뿐이며 이번 기회를 그간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완전히 준비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자"고 강조하였다. 이번 훈련 모임은 실제 준비 상황을 지도자들이 확인함으로써 일부 준비가 미흡한 회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주고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는 커다란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다. (이회범)

전주 스테이크

청녀 창립 기념 행사

지난 11월 27일(토)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청녀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다. 청녀들이 각 와드/지부 별로 준비한 연극을 발표하여 재능을 발휘하였고, 청녀에 관한 책자와 포스터 등을 전시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표준에 관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 와드 장로 정원회에서 축하 공연을 해주었다. 청녀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훌륭히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 안에서 생활함이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지난 12월 26일(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청소년 부모님과 청소년 지도자가 모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려 하는 이 모임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청녀 새로운 시작

지난 1월 15일(토)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새로운 시작" 모임을 가졌다. 이철오 스테이크장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얻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하며 청소년들이 현재 위치에서 신앙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끝까지 건널 수 있도록 간증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스테이크 청녀 회장인 남화영 자매는 2000년 청녀의 목표와 계획을 전하였고 남원 지부의 이진아 자매가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실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간증을 전하였다. 분반 모임에서 청녀 모토와 주제, 각 반의 주제와 로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번 모임을 통해 각 와드/지부의 청녀 회장단과 청녀들이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었다.

성전 방문

전주 스테이크는 지난 1월 18일(화) 성전을 방문하였다. 각 와드/지부 회원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 새벽에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였다. 60여 명의 회원들이 성전을 방문하였는데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대리 침례를 받았다. 이날 모인 성도들의 얼굴에선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고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테

지난 1월 22일(토) 전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전주와 노송 청소년들이 한달 반 동안 준비한 제13회 "나이테"가 있었다. 나이테는 준비하는 동안 청소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약 15년 동안 이어져 온 모임이다. '사랑' (모로나이사 7:47)을 주제로 한 이번 모임에서는 사물놀이, 난타, 시낭송, 합창, 연극, 선배들의 무대 등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사물놀이는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으로 방방 문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에어로빅은 신선하고 창의적인 안무로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요셉 스미스의 강한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연극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이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나이테는 모임의 준비부터 발표까지 모든 것을 청소년들이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 뿐 아니라 성인들도 그들의 밝고 환한 모습을 통해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 (진은하)

종교 교육원 소식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

겨울 방학을 맞아 각 종교 교육원에서는 '99년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이 세미나리 시간에 배운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를 함께 정리하는 경전 퀴즈 대회를 주최하였다. 지난 1월 21일(금)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부산 종교 교육원이 주최한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 합동 경전 퀴즈 대회가 있었다. 이번 대회 개인 1등은 부산 서 지방부 대신 지부 소속 김혜용 형제와 김미경 자매가 차지했고 단체 1등은 대신 지부가 차지했다. 또한 지난 1월 22일(토) 열린 대구 스테이크 경전 퀴즈 대회에서는 대명 와드 소속 배상운 형제가 개인 1등을 하였고 대명 와드가 단체 1등을 하였다. 서울 동종교 교육원은 같은 날 서울·동·영동·동대문 4개 스테이크 총 16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경전 퀴즈 대회를 주최하였는데 개인 1등은 동 스테이크의 방아람 자매와 전시내 자매에게, 단체 1등은 동 스테이크에게 돌아갔다. 서울 동종교 교육원은 올해부터 경전 퀴

즈 대회의 목적을 경전에 대한 지식을 겨룬다는 의미보다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이 세미나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그 방편으로 한 번이라도 퀴즈 대회에 출전하였던 형제나 자매에게 다시 참가할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하였다.

시애틀에서 봉사의 모범을 보임



현재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원 형제(사진 맨 오른쪽)가 그 곳 초등학교와 중학교 3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한국인의 높은 기상과 열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이재원 형제는 한국 거주 당시 서울 성전 의식 봉사자로서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으며, 지금은 시애틀 성전에서도 의식 봉사자로서 교회와 이웃에 높은 표준을 보이고 있다. 이재원 형제는 회원 가족과 귀환 선교사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봉사를 통해 함께 우정을 나눌 사람을 찾고 있다. 궁금한 점은 1-425-644-7328로 문의하면 된다.

겨울을 가르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의 기상

방학을 맞아 각 스테이크에서는 청소년들의 젊은 신앙과 열의를 한껏 느끼게 하는 야영 대회가 열렸다. 그동안은 대개 하루나 이틀의 일정으로 간략히 치렀던 동계 청소년 대회이지만 최근 각 스테이크마다 2박 3일 이상으로 여유있는 일정을 잡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좀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겨울의 추위도 무색케 하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의 대회 모습과 그들의 간증을 살펴보기로 하자.

년들의 대회 모습과 그들의 간증을 살펴보기로 하자.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지난 1월 8일(토) 하루 일정으로 동계 청소년 대회를 다녀왔다. 아침 일찍 서울역에 모여 기차를 타고 천안에 도착하니 서울과는 달리 밤새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예상치 못한 행운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독립 기념관에 근무하는 이정은 청주 스테이크장은 "하나님의 영이 곧 자유의 영"(엘마서 61:15)이라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말일성도로서 민족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독립 기념관을 둘러보았는데 도우미의 세심한 안내를 받은 덕에 단체 관람을 왔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박세리)

"원리를 가르쳐 스스로 견게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북 스테이크 청소년 및 고문 70여 명은 1월 19일(수)부터 2박 3일 간 인천 앞바다 무의도 학개 해변에서 동계 하이킹 모임을 가졌다. 신권정원회 및 청년 반별로 대대를 조직하여 대회 기간 중 활동과 취사를 스스로 해결했고, 거대한 영종도 신공항과 무의도를 둘러싼 바다를 보며 미래에 대한 무한한 꿈을 꾸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로 다짐하였다. (오현옥)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동계 야영 대회가 지난 1월 20일(목)부터 삼일 간 설악산에서 열렸다. "자연을 통해 주님의 흔적을 느끼며 신앙을 키운다"라는 주제로 18명의 청년, 청년가 함께 등반에 참여했고 전임 스테이크장인 이상태 형제 부부도 함께 했다. 골(峯)산이라고 불리는 설악산의 험난한 지형과 영하 20℃를 넘나드는 기온, 40cm이상 쌓인 눈 등으로 인해 등반은 어려웠지만 참여자 모두 서로를 도와주면서 단결하는 데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눈꽃이 핀 나무와 바다 위에 곱게 포개어 놓은 듯한 구름, 해와 달이 교차할 때의 장관은 주님이 살아 계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성운)

새천년을 맞아 '희망'이라는 주제로 1월 14(금)~15(토) 양일간 열린 안양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에서는 음식 경연회와 타임 캡슐 등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둘째날 있었던 관악산에서의 생존 훈련은 비상시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배우는 훌륭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모든 모임을 통해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니파이서서 31:20) 새천년을 시작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심상문)

간증

마지막 청소년 대회를 다녀 와서...

서울 북 스테이크 성산 와드 오세화 자매

제 청년 생활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떠난 하계 청소년 대회와 함

배경 사진: 무의도 호룡곡산 정상에 오른 서울 북 스테이크의 제사 정원회 형제들



선교 사업이라는 주제하에 세미나를 마치고
초청 감사인 하 일 형제와 함께 한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들

게 시작되었고 이번 동계 청소년 대회와 함께 청년 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마친 뒤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을 동계 청소년 대회가 이루어 준 것입니다. 게다가 겨울 바다로 향한다는 말에 짐을 챙기기 며칠 전 부터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소년 대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무의도에 닿았을 때는 생각보다 바람도 매섭고 눈이 많이

내려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많아 속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던 청소년 대회였습니다. 봉사가 기쁨이라는 것, 자유 의지를 사용하는 데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과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녀온 뒤에는 한층 발전된 자신을 발견하고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청년 1보좌로 청소년들을 이끄는 고문의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온 청소년 대회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추억들을 얻은 것처럼 동생들도 청소년 대회를 통해 더 훌륭한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대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청소년 대회는 지금까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귀중한 경험과 즐거움, 또한 살아있는 간증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는 축매 역할을 해왔다. 등산과 하이킹, 잘 준비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이들은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어느 때 보다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단 며칠 간의 경험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쌓여가는 간증과 경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자 내일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된다. 겨울을 가르는 그들의 힘찬 함성 소리는 새봄에도 전국에 울려 퍼질 것이다.

역원 변경

대전 스테이크

금산 지부가 삼성 와드로 통합됨.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감독: 하태완 (전임자: 김인환)

서울 동 스테이크

동두천 지부 지부장: 정윤현 (전임자: 박용진)

용산 미군 지방부

용산 제1지부가 용산 제2지부로 통합된 후 명칭이 용산 지부로 변경됨.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228기 3명 / 해외 1명



김민경
전주 스테이크
남원 지부
부산 선교부



윤혜진
서울 서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부산 선교부



이후현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서울 선교부



장혜선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솔트레이크 남 선교부